

## PA-42

## 전북지역 울무 논재배 생육 및 수량성

최규환<sup>1\*</sup>, 조영민<sup>1</sup>, 허병수<sup>1</sup>, 김주<sup>1</sup>Kyu Hwan Choi<sup>1\*</sup>, Yeong Min Jo<sup>1</sup>, Byong Soo Heo<sup>1</sup>, Ju Kim<sup>1</sup><sup>1</sup>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4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sup>1</sup>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Extension Services, Iksan, 54591, Korea.

## [서론]

울무(*Coix Lacryma-jobi* L.)는 약용 또는 식용으로 쓰이며, 종실에는 단백질과 지질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어 건강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울무는 남부지방에서는 5월 상순에 파종하거나 육묘하여 이식재배하기도 한다. 수확은 성숙에 따라 9월하순부터 10월하순까지 가능하다. 울무는 발재배를 주로 하지만, 기계화 및 잡초관리, 수확 등의 효율적인 재배관리를 위하여 논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무의 논재배의 생육 및 수량성을 검토하여 영농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울무 논재배에서의 생육과 수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21년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벼 포트묘이앙기 및 전용육묘상자를 활용하여 육묘와 이식하였다. 파종일자는 5월 10일이었고, 육묘상자의 구멍당 3립을 파종하였고, 12일간 육묘하였다. 정식간격은 30×30cm이었다. 조사내용은 육묘기간에 따른 근장, 근수, 초장 등이었고, 정식 후에는 출수기, 간장, 분얼수, 백립중, 종실중 등이었다. 조사자료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p < 0.05$ 에서 평균값 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 [결과 및 고찰]

울무 포트육묘에서 묘소질은 파종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초장, 근장, 근수는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초장은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근장은 초장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근수는 파종후 14일경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울무 논재배를 위하여 벼 포트묘 전용 이앙기를 활용하여 논재배를 수행한 결과, 논재배와 발재배의 출수기는 비슷하였고, 간장은 발재배에서 199cm로 논재배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으며, 분얼수는 논재배가 발재배 10.9개보다 크게 적었다. 백립중은 논재배와 발재배 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논재배에서 무거운 경향이었고, 논재배의 종실중은 발재배보다 70% 수준인 257~275kg/10a이었다. 이상과 같이 울무는 논재배에서 수량이 다소 감소하지만, 논에서 기계를 이용한 생력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사]

본 연구는 ‘동부권 신소득 식량작물 발굴 및 실용기술 개발’ 사업(사업번호: LP003297202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ckhann@korea.kr Tel. +82-63-290-6031